

이상적인 인체미에 따른 복식과 머리형태에 대한 고찰

- 중세시대를 중심으로 -

김옥준[†] · 김영주

국제대학 피부미용학과

A Study of Dressing and Hair Style Based on the Ideal Beauty of Human Body

- Focused on the Middle Ages -

Ok-Jun Kim[†] · Young-Joo Kim

Dept. of Cosmetology, Kuk Jea College

(2007. 1. 15. 접수/2007. 2. 22. 채택)

Abstract

One of the latest social trends is to reappear old things under the banner of the revival. It is easily found in the fashion industry because Fashion is not divided into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ing but coexisting through all 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ursue the healthy and characteristic beauty of the modern people by understanding the beauty culture of the ancient. The Middle ages were mainly classified into Byzantine, Romanesque and Gothic by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In the Byzantine age, the clothing with rich silhouette was worn by the influence of the abstemious religion and it didn't express a specific proportion of human body. The people covered their hair with turbans and veils for the period. The Romanesque era was affected by the religious idealism and the Greek-Roman culture. The ideal proportion of human body could be 8 heads high and the clothes expressing natural silhouette of human body came out. Depending on the feel of the flowing texture, long-braided hair was typical in that time, and also wearing kinds of head dress as personal ornaments was characteristic in the age. In the period of Gothic, the long and weak human body was emphasized. The ideal proportion of human body could be figured with 8.5 heads high and it was expressed with the form of artificial and vertical silhouette such like tight-fitting upper garments, gathered skirts and long hats.

Key words: Middle ages(중세시대), Beauty of human body(인체미), Dressing(복식), Hair style(머리형태)

I. 서 론

1. 연구 목적

인체는 본래 그 자체로서 완벽한 미를 갖춘 대상은 못되지만 정교하고 복잡하며 가장 아름다운 사물로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의 중요한 주제로서 표현

되어져 왔다. 어느 시대든 완벽한 신체비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이상적인 인체미는 복식과 머리형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목표에도 달성할 수 있었다. 한 시대의 신체적 이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아름다운 신체비례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며, 한 문화권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달라진다. 특히 특정 시대의 사회적 이상체형은 복식, 머리형태 등 여러 뷰티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Corresponding author: Ok-Jun Kim

E-mail: kkacsuni@daum.net

뷰티문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기도 한다¹⁾.

현재 인체미와 복식에 대한 연구는 이옥희의 ‘이상적인 인체미와 복식디자인의 착시효과’와 전경숙의 ‘인체미의 이상형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가 있고 중세 머리형태의 연구로는 전선정의 ‘서구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와 지양숙의 ‘중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인체미와 복식, 또는 머리형태의 형태적 변천사를 개별적 요소들을 위주로 연구하였을 뿐, 한 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미에 따른 복식과 머리형태의 복합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성과 그러한 형태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던 문화적 영향들과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연구는 별로 없었다.

최근 패션의 흐름은 복고풍이라는 이름 아래 옛 것을 재현하고 현 시대에 어울리게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으로 표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대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공존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세의 뷰티문화를 이해하고 도모하여 나아가 현대의 개성 있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상체형에 따른 복식 그리고 당대 유행한 머리형태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 발전하였는지 중세시대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시대상을 반영하여 사회적 변화의 거울이 되는 복식과 머리형태 흐름의 이해를 돕고자 중세시대의 대표시기인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시대의 정치, 경제, 지리, 종교, 문화 등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상적인 인체미는 수의 개념인 비례로 인체의 실루엣을 다양한 의복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머리형태도 단지 머리카락의 조형적 형태뿐만 아니라 모자나 베일, 관, 장신구 등을 활용함으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비례에 입각한 하나의 일관된 실루엣의 표현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상적인 인체미 표현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헤드드레스의 종류와 형태도 함께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미술사 서적 등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세시대의 이상적 인체미를 우선 고찰하고 그에 따른 복식, 머리형태에 대한 형태적 특성과 그러한 형태적 특성을 이끈 사회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II. 중세시대의 사회적 배경

서양사에 있어서 중세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와 근대 르네상스의 중간시대로서 학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세기 말부터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15세기까지를 통칭하며²⁾, 대표적으로 비잔틴시대, 로마네스크시대, 고딕시대로 구분 짓는다. 중세의 사상적 흐름은 신학주의, 신비주의, 과학주의로서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하는 철학적 이데올로기로 이어졌다. 신과 세계를 통일시 하는 중세시대의 관점은 신이 인간세계 안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신성(神聖)을 위해 정진해야 하는 존재로서 전반적인 사회체제가 기독교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금욕적인 기독교 정신은 현세보다 내세나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 현세적인 추한 인간의 육체를 덮고 가리고자 했으며 육체의 형태나 피부를 드러내는 의복을 피하였다. 중세 유럽의 문화는 4세기 말부터 1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약 600여 년 동안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침입, 민족 이동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무질서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로인해 문화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이 시기는 암흑과 비문화의 시기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은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이웃에 대한 방어로 안전의 보장과 질서의 유지였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무력을 갖추어야 했으며, 그러지 못한 자는 힘 있는 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강자가 약자에게 힘으로 지배하고 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없었던 폭력적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지배체제로서 서서히 자라난 것이 바로 중세의 봉건제도이다³⁾. 중세유럽 봉건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적 사회, 사회경제적으로는 농노제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였으며 장원제도와 주종제도로 맺어진 피라미드형의 봉건적 계층제를 이루었다. 중세를 잘 상징하는 장원제도는 자급자족의 봉쇄적인 성격을 띤 경제조직으로 각기 신분차이에 따라 도덕과 규율이 달랐으며, 복장, 머리형태와 언어까지 모두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신분사회의 특색을 띠었다⁴⁾. 중세의 예술적 측면을 개관함에 있어서 비잔틴 문화의 가장 큰 업적은 그리스 고전의 보존자란 역할을 수행하였다⁵⁾는 점이며 문학이나 사상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종교적 신학으로 종교적 찬가와 종교적인 논쟁에 단련된 사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학저술이 주종을 이루었다. 또

한 기독교사상에 동방적 요소가 융합하여 독자적인 양상을 수행하였다⁶⁾. 중세의 화가들은 종교화를 더욱 성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풍부한 색채나 금도금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는데 이들 예술가들은 돌, 유리, 금속, 나무, 직물 등 여러 소재들을 능숙하게 잘 다루었으며, 이러한 재료로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훌륭한 건축물과 예술작품들을 창조하였다. 비잔틴시대의 미술은 그림물감을 써서 그리는 방법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이크로 종교용 그림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비잔틴 건축과 미술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 마르코 성당, 성 소피아 성당, 모자이크로 유명한 성 비탈레 성당 등이 있다.

비잔틴문화가 융성하는 동안 서유럽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거쳐 세계문화의 기틀이 될 독특한 성격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대이동을 거쳐 안전을 찾기 시작한 11세기경의 유럽은 게르만민족의 추축이 되어 로마제국의 정치적인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적인 면은 종교가 기반이 되고 문화적으로는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가장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던 시기이다⁷⁾. 정치적으로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기독교의 교세 확장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인구팽창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동방 원정을 하였는데 이것이 십자군 원정이다. 계속된 십자군 원정으로 인한 유럽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동·서양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의 예술을 등장시켰는데 이것이 로마네스크 예술이다⁸⁾. 십자군 원정에 따른 군복의 발달과 기사계급의 출현으로 약한 자를 돕는 기사도 정신은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데서 신체의미를 더욱 가꾸려고 하는 심리를 만들었으며 이는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시대의 인체미 표현을 구분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로마네스크에 이어지는 서유럽의 한 양식으로 고딕은 도시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성장된 대학문화와 학문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고딕양식은 십자군원정으로 동방으로부터 뛰어난 기술의 제작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온 것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산업적인 면에서의 발전과 휴머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의 미술양식이다⁹⁾. 12세기 중엽에서부터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회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점차 중세적 기독교 관념에 회의론을 갖게 되었다. 그로 인해 조금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이 싹트게 되었고 이러한 심리는 자신의 치장에 관심을 갖

게 만들었다. 먼저 여성들의 과감한 노출이 시도되었고 인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상의가 착용되었으며 그 전까지의 폐쇄적이며 단순했던 머리형태에서 좀더 과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머리형태가 선보였다. 조각상에서 나타나는 과도하게 기다란 비례, 가느다랗고 연약한 골격, 흐르는 듯한 옷의 주름은 고딕시대의 건축양식과 함께 높은 곳을 추구하고자 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특징을 양식화, 선적인 특징, 고딕식의 흔들림이라 할 수 있다.

III. 중세시대 인체미에 따른 복식과 머리형태의 특성

1. 비잔틴 시대

비잔틴시대의 인체표현은 비례론적으로 수치화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선적원리에 지배되었으며 평면성이 특징이었다. 신체는 종교적 이유인 정숙, 금욕의 풍조로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인체 은폐형으로 남녀의 성차가 드러나지 않으며 중성적인 이미지<그림 1, 2>¹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신체표현 또한 비잔틴시대의 이상적인 인체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대표적 의상으로는 한 벌로 상하를 모두 입는 T자형 튜닉(tunic), 어깨에 걸쳐 입는 망토형태인 맨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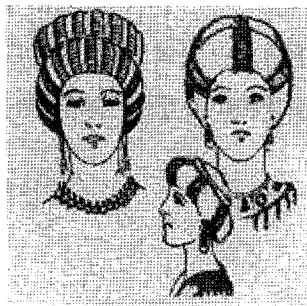
<그림 1> Theodora 황비와 시녀들
서양복식문화사, p.108.



<그림 2> 황제 Justinianus와 시종들
서양복식문화사, p.107.

(mantle) 등이 있다. 비잔틴시대의 복식은 그레코-로만(greco-roman : 그리스와 로마) 풍의 양식에 동방로마제국의 수도이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유입된 페르시아의 화려한 색채와 중국의 견직물이 혼합, 발달하였다. 여기에 동방양식의 큰 영향과 경제적 번영의 영향으로 인한 장신구의 발달은 비잔틴 복식에 다각도로 반영되었고 비잔틴 복식을 그리스, 로마나 서유럽과 매우 다른 형태로 구분 짓도록 하였다. 기독교적 사상의 영향인 체형을 감지할 수 없는 풍성한 실루엣은 디자인의 독창성, 인체비례,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화려한 색채 감각적 장식으로 신의 영광, 신비로움, 천국의 영화 등을 표현하며 평면성의 극대화를 이루었다. 이렇듯 비잔틴 복식에서는 로마의 단순성이 동방의 화려한 장식으로 채워졌으며 원, 양, 비둘기, 십자가 등의 문양과 여러 종교화 등에서 채워진 면적이 채워지지 않은 면적보다 커 보이고 넓어 보이는 오버트(aubert) 착시효과¹¹⁾를 나타내었다. 진주와 갖가지 화려한 보석 장식은 장식적 재질의 착시효과를 나타내어 복식으로 인한 인체면적 확대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잔틴 시대의 머리형태는 인체미, 복식과 같은 맥락으로 연출되었는데 초기에는 로마인의 머리형태와 같이 머리를 땅아 밴드나 리본으로 묶거나 올리는 간단한 형태였다. 대표적으로 앞 중앙에서 가르마를 타서 양옆의 귀를 덮고 뒷머리는 땅아 머리위로 틀어 올려 그곳에 부드럽고 얇은 천과 여러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술을 단 베일을 붙여 뒤로 길게 늘어뜨렸다¹²⁾. 4세기경 여성들 사이에는 특수한 머리장식으로 터번과 같이 생기고 가장자리에 롤과 패드를 댄 큰 캡 <그림 3>¹³⁾이 유행하였다. 이것을 이마와 귓불이 나올 정도로 눌러써서 머리카락을 모두 감추었는데 점



<그림 3> 비잔틴시대 여성의 머리장식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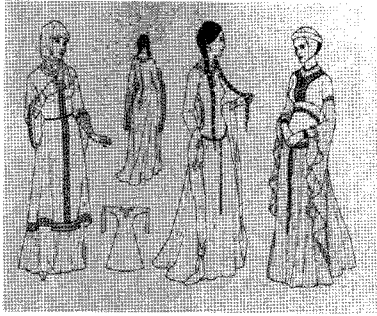
<그림 4> 비잔틴시대 여성의 머리장식
서양복식의 역사, p.150.

차 캡이 작아지고 패드의 수도 감소되었다. 8세기 이후에도 머리를 감싸는 형이 주를 이루어 머리 자체의 형태보다는 부드럽고 얇은 천에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술을 단 베일을 붙여 뒤로 늘어뜨리고 금속밴드를 관처럼 써서 고정시키는 등의 수식이 발달하였는데¹⁴⁾ 이 또한 머리모양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기독교 신앙의 영향으로 13세기 동안 여자들의 머리는 뿔이나 고깃을 써서 머리카락을 모두 감싸거나 부분적으로 감쌌는데 이때의 헤드드레스의 변형이 오늘날의 종교의식에도 착용되고 있다¹⁵⁾. 이 시기는 머리형태보다 머리를 장식하는 헤드드레스에 장식의 초점이 맞춰진 시기로, 두상을 모두 감싼 것은 신체의 실루엣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복식과 함께 비잔틴시대의 일관된 은폐적인 인체표현이라 할 수 있다. 머리장식은 주로 귀부인에게 한정되었으나 보석, 진주, 금속재질의 장신구<그림 4>¹⁶⁾들은 그들의 복식에 있어서의 다양한 무늬 그리고 화려한 색채 등과 잘 조화되었다. 이 또한 형태적 실루엣의 강조보다는 장식재질들의 질감을 강조한 것으로 비잔틴 시대의 독특한 복식문화의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다.

2. 로마네스크시대

12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이 갖고 있는 혼합성은 게르만적요소를 바탕으로 고대 로마 스타일의 부활과 기독교의 영향, 그리고 비잔틴의 동양적 요소가 융화되어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시켰다¹⁷⁾. 중세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육체의 노출을 종교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비잔틴시대에는 인체를 속박하는 의미에서 인체의 전부를 은폐하였다. 그러나 로마네스크 양식의 의복은 인체를 속박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인체미를 이상으로 여겨 인체의 실루엣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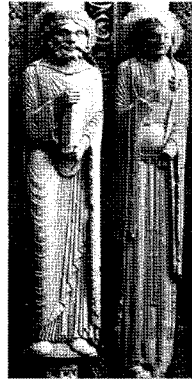


<그림 5> 로마네스크 여성의 복식
서양의 복식문화, p.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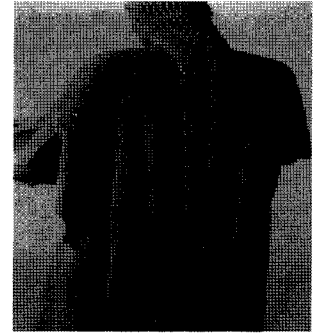
대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인체비례는 중세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인체의 조화적 비례를 중요시하는 고대 로마시대 인체미의 영향으로 8등신으로 표현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표현되었다¹⁸⁾.

중세사회 수공업자들의 조합인 길드가 형성되었고 활발한 생산 활동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활동량이 증가하였으며 자연스레 의복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복식은 비록 고전적인 고대복식과 비잔틴 복식이 기본이 되었으나 활동량이 많은 당 사회에 적합하도록 전체적으로 험렁한 형태의 의복에서 몸에 맞는 형<그림 5>¹⁹⁾으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²⁰⁾. 11세기 대표적 남녀의복인 오브튜닉(over tunic)인 블리오(bliaud)는 상하가 분리되어 재단되었고 인체의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 신축성이 있는 울과 실크를 사용하였는데 게르만인의 신체를 감싸는 밀착형 의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언더튜닉(undertunic)으로 원피스 형태인 체앵즈(chainse)는 블리오 안에 입었는데 소매는 좁고 입고 벗기 편리하도록 단추나 끈으로 묶어 입었으며 13세기부터는 슈미즈라고 하였다²¹⁾. 이 밖에도 여성들이 블리오 위에 착용한 조끼형 의복으로 몸의 곡선을 드러내기 위해 등 뒤를 트고 끈으로 끼워서 잡아당겨 몸에 꼭 끼게 입은 꼬르사아쥬(Corsage)와 서민들이 블리오 대신 입었던 튜닉, 망토처럼 몸에 한번 둘러 입은 맨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의복은 모두 고대 로마시대의 취향인 수직선을 강조하는 주름의 미, 자연스러운 인체의 실루엣 표현, 의복 재질들의 울동감 등을 나타내었지만 여전히 중세의 종교적 관점으로 인하여 신체의 노출이나 신체의 극부적 강조는 그들의 복식에서 표현되지 않았다<그림 6>²²⁾.

로마네스크의 머리형태와 머리장식은 신체를 많이 가리는 의복에 따라 관의 겹옷, 후드, 베일 등으로 비



<그림 6> 로마네스크 복식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p.70.



<그림 7> 로마네스크시대 여성의 머리형태
미용문화사, p.70.

잔틴 시대의 종교복이나 의례복의 형태를 답습하였다²³⁾. 이 시대의 여성들은 긴 머리채가 자랑거리었으므로 앞가르마를 타서 머리카락을 두 가닥이나 세 가닥으로 땅아 길게 늘어뜨린 형태<그림 7>²⁴⁾가 주를 이루었는데 자신의 머리 외에도 가발이나 리본으로 감아내려 거의 발까지 닿을 정도로 타래를 드리웠다. 귀부인들은 관을 쓰기도 하고 베일을 쓰기도 했는데, 머리위에 한 종류 이상의 원형이나 장반형의 베일을 얼굴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뚫거나 그대로 썼다. 그 길이는 어깨까지 내려오거나 허리까지 내려왔으며 또는 발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었다. 또한 처녀들은 베일을 거의 쓰지 않았으며 리본이나 꽃으로 만든 머리띠를 두르거나 관을 썼다²⁵⁾. 전체적인 실루엣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길게 땅는 머리형태와 베일<그림 8>²⁶⁾은 부드럽게 인체의 실루엣을 나타내며 밀으로 흐르는 의복의 형태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짐을 알 수 있다. 헤드드레스로는 머리에서 얼굴과 목까지 감싸는 워플(wimple)이 있었고, 머리까지 두르



<그림 8> 로마네스크시대 여성의 머리장식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p.70.

는 맨틀(mantle), 가슴에서 끈으로 여미는 샤프(chape), 목과 턱을 감싸고 머리에는 위에 베일을 쓰고 장식적인 가는 관으로 고정시킨 고깃(gorget) 등이 있었다. 여자모자는 친밴드(chinband)를 하고 그 위에 필박스(pillbox)를 착용한 형태가 나타났다²⁷⁾. 이러한 머리모양은 머리카락의 직접적인 꾸밈이라기보다는 여러 헤드드레스로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서, 이는 중세의 세계관인 종교적 관점에 의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과 함께 기독교적 영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네스크시대의 머리형태는 게르만적 요소, 고대 로마적 요소, 종교적 요소들에 의해 복식과 마찬가지로 혼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9> 고딕시대 복식 서양복식의 역사, p.211.

3. 고딕시대

고딕시대의 이상화된 인체 이미지는 큰 머리, 좁은 어깨, 빈약한 가슴, 넓은 골반, 둥글고 볼록한 배, 가늘고 긴 팔과 다리로 인체비례는 8.5 등신으로 길게 표현 되었으며 마리아 타입의 풍부하고 포용성이 가득 찬 이미지가 이 시대의 이상형이었다. 고딕시대는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 동양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무역을 통하여 직물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²⁸⁾. 풍성한 염료와 그 외의 다양한 장식품의 출현, 다양한 길드 조직은 고딕복식의 종류와 모양, 색 등을 더욱 복잡하고 화려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종래의 정적인 생활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적인 생활로 바뀌자 의복도 합리적인 형태를 추구하여 입체적인 재단으로 인체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복식의 외관형태는 종교에 대한 회의로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여성들은 자신의 치장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옷감과 거들(girdle)을 착용해 인체의 곡선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출이 시도되어 데콜레테(decollete)가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V자나 U자형 등으로 네크라인(neckline)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15세기에 들어오면서 네크라인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가슴에 장식천을 따로 붙이기도 하였다. 거들 착용과 데콜레테의 강조는 날씬하고 가냘픈 체형<그림 9>²⁹⁾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4세기에는 수세기동안 거의 없었던 남녀 의복의 성차가 처음으로 뚜렷해졌는데, 본격적으로 남성은 바지를, 여성은 스커트를 입었다. 여성의 의상은 수직적 효과를 위해 주름의미를 강조하였고, 신체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그림 10> 고딕시대 여성들의 복식 서양의 복식문화, p.148.

게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으로 인해 상체는 꼭 맞고 스커트는 넓고 길어졌으며<그림 10>³⁰⁾ 크고 호화로운 망토 같은 겉옷을 착용한 것이 특징이다. 복식은 고딕건축의 첨두적 외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길고 흐르는 듯 한 실루엣, 앞이 뽀족한 구두, 높고 뽀족한 모자, 소매와 옷단의 툄니 형태의 디자인은 모두 이러한 예각적 감각을 반영하고 있다.³¹⁾

중세시대 여성의 머리형태는 고딕시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달되었다. 또한 14세기부터 의복이 전보다 점차 화려하고 복잡하며 다양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머리형태와 장식에도 다양하고 과장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젊은 여성들은 머리를 느슨히 늘어뜨리고 기혼 여성들은 대개 머리를 올렸는데, 한 형태로 머리카락을 뒤에서 반으로 나누고 귀 앞 얼굴 쪽으로 끌어 땅아 양쪽 귀 위로부터 목 언저리까지 크게 부풀려 주어 원통형이나 원추형 또는 바퀴모양으로 만들었다. 본인의 머리만으로 충분히 크고 굵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발도 사용하여 더욱 과장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데³²⁾ 이것을 양의 뿔(Ran's horn)



<그림 11> 고딕시대 여성의 머리형태
A Guide to the Louvre, p.221.



<그림 12> 고딕시대 여성의 머리형태
서양 복식의 역사, p.167.



<그림 13> 고딕시대 여성의 머리형태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p.83.

<그림 11>³³⁾이라 하였고 이러한 형태는 넓고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15세기 머리형태와 머리장식은 머리카락을 위로 깨끗하게 올려 머리장식 속으로 넣었으며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의 한 기준이 되어 앞머리를 이마에서 더 넓게 뽑았다<그림 12>³⁴⁾. 상류계급의 여성들 간에는 넓이와 높이를 강조한 과장되고 독특한



<그림 14> 고딕시대 여성들의 머리장식
서양복식문화사, p.154.

머리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에스커피온(escoffion) <그림 13>³⁵⁾과 에넵(hennin)<그림 14>³⁶⁾ 등이 생겨났다. 에넵 부인이 고안하여 이름 붙여진 에넵이라는 모자는 고딕건축의 대표적인 특징인 뾰족함과 직선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모자이다. 이것은 딱딱한 천으로 원추형 모자를 만들어 그 위에 베일을 덮어 내려 옷자락까지 늘어뜨린 형태로 수직적 착시효과를 가져왔다. 위와 같은 머리장식 안의 머리는 보이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뒤로 단단히 빗어 높은 캡을 꼭 맞게 쓰고 머리를 올리거나 묶고 땀은 머리들은 머리 전체나 양옆의 땀은 머리였다 금, 은, 견사와 보석으로 장식한 그물망을 덮어쓰기도 하였다. 다양한 머리 형태와 여러 형태의 헤드드레스는 복식과 함께 고딕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미를 표현하기 위해 넓고 길며 흐르는 듯한 형태로 나타났다.

IV. 결 론

인체미에 따른 복식과 머리형태의 상관관계에 대해 중세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잔틴 시대에는 종교적 금욕주의로 인하여 인체의 실루엣을 가늠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복식은 풍성한 실루엣에 인체의 면적이 확대되어 보이는 듯 한 착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징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복식의 소재로는 동방에서 유입되고 영향을 받은 두텁고 화려한 직조물 등이 사용되었으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느슨한 튜닉형의 풍성한 실루엣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복식에는 성적인 의미나 차이는 볼 수 없었으며 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비잔틴시대의 대표적 머리형태로는 터번과 같이 생기고 가장자리에 톨과 패드를 댄 큰 캡을 착용하여 모발이 보이지 않는 형태였으며, 베일을 이

용하여 머리를 감싸는 형이 주를 이루어 머리 자체의 형태보다는 부드럽고 얇은 천에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술을 단 베일을 붙여 뒤로 늘어뜨리고 금속밴드로 관처럼 써서 고정시키는 등의 수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머리형태는 복식과 같은 형태로 비례, 균형적 조화보다 보석이나 진주, 실크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헤드드레스와 화려한 종교적 모티브를 표현하여 비잔틴시대의 머리형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비잔틴시대의 복식과 머리형태에서의 풍성함이란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색채와 장식적 질감에 의해 채워진 복잡한 문양 등에 의해 확대되어 보이는 면적확대 착시효과라 할 수 있다. 비잔틴 시대의 전체적인 미의식은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로 신체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온몸과 머리까지 옷과 베일로 감싸는 중세 기독교 중심의 금욕주의적 문화의 전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로마네스크시대는 종교적 영향, 고대 로마의 문화, 게르만적 요소가 융화되어 독특한 혼합적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고대 로마의 영향인 인체를 자연스러운 산물로서 받아들여 육체의미를 표현하려는 미의식과 시대정신을 지배하며 여전히 인체를 은폐하고자 하는 기독교적 사상이라는 두 가지 의식이 공존하였고 전체적으로 8등신으로 인체미를 표현하였다. 상업경제의 활성화로 좀 더 활동성을 추구하는 의복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었으며 종래의 몸에 걸쳐 두르는 풍성한 형태의 의복에서 신체를 감싸며 상하가 분리된 밀착형 의복으로 변화되었다. 이시대의 복식은 남녀의복이 구분되었는데 여성의 의복은 비잔틴시대의 성차를 알 수 없고 인체의 실루엣을 가늠할 수 없는 풍성한 형태에 비해 좀 더 인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의복들이 착용되었다. 인체의 곡선을 나타내기 위한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사용되었는데 상체의 윤곽선이 드러나게 꼭 끼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통이 넓어진 블리오, 입고 편리하도록 단추나 끈으로 묶어 입은 웨앵즈, 등 뒤를 트고 끈으로 끼워서 잡아당겨 몸에 꼭 끼게 입은 꼬르사야쥬, 몸에 두르는 외투인 탠틀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의복이다. 이러한 의복은 경제발달에 따른 활동성을 추구하고 고대 로마적 취향이 엿보이는 형태이지만 여전히 중세의 종교적 관점으로 인한 신체의 노출이나 극부적 강조는 그들의 복식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다. 이 시대의 머리형태로는 여전히 인체를 많이 가리는 의복에 따라 비잔틴시대의 여러 형태의 베일과 장신구들이 그대로 답습되었다. 하지만 점차 의복형태에서 인체

의 실루엣이 부각되고 미를 받아들이는 의식의 변화에 따라 머리형태도 조금씩 변화되었는데, 앞가르마를 타서 머리카락을 두 가닥이나 세 가닥으로 뿔아 길게 늘어뜨렸으며 자신의 머리 외에도 가발이나 리본으로 감아내려 거의 발까지 닿을 정도로 타래를 드리웠다. 또한 처녀들은 베일을 거의 쓰지 않았으며 리본이나 꽃으로 만든 머리띠를 두르거나 관을 썼다. 여전히 헤드드레스를 많이 착용하였는데 다양한 헤드드레스로 머리를 감싼 형태는 중세의 세계관인 종교에 의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과 함께 기독교적 영향이 여전히 있었음을 나타낸다.

고딕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비례는 긴팔과 다리, 빈약한 가슴, 좁은 어깨, 불룩한 배, 넓은 골반으로 8.5 등신이다. 중세사회의 지배적인 요인이었던 종교에 대한 회의와 십자군원정에 따른 동양문물 유입과 무역의 활성화로 상공업 발달 등의 영향은 다양하고 과감한 의상과 복잡한 장식에 다각도로 반영되었다. 이상적인 인체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복식의 형태로 거들을 착용하였고 그 위에 윗몸은 몸에 밀착시켜 몸의 윤곽을 강조하였다. 또한 네크라인이 V나 U자형으로 아래로 내려갔으며 스커트는 주름을 많이 주어 밑으로 흐르는 듯하게 하고 망토 등을 이용하여 더욱 더 길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연출하였다. 그와 동시에 머리형태도 머리 위쪽으로 높이를 주기 위해 에스커피온, 에냉, 양의 뿔과 같은 높은 모자와 여러 장식물 등을 착용했으며 베일을 머리에서 길게 늘어뜨려 역시 수직적 착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머리카락을 위로 깨끗하게 높이 올려 머리장식 속으로 넣었으며 이때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의 한 기준이 되어 앞머리를 이마에서 더 넓게 뽑았다. 이 또한 전체적 실루엣의 길이 강조로 고딕 뷰티문화의 대표적 특성의 머리형태로 볼 수 있다.

중세시대의 인체미에 따른 복식과 머리형태의 조형성을 고찰한 결과 이들 각각의 형태적 특성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각 시대의 이상적인 미를 목표로 조화롭게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형태들은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전경숙(1995). 인체미 이상형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 2) 전선정(1994). 서구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 3) 문석홍(2004). 세계문화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49.
- 4) 김기업(1985). 고딕시대의 남녀 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 5) 민석홍(1993). 서양사개론. 서울: 삼영사, p.184.
- 6) 강림아(1999). 현대 서양복식에 표현된 중세문장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7) 백영자, 유효순(2003). 서양의 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pp.131-132.
- 8) 조진애, 손희정, 이혜진(2001). 서양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p.173.
- 9)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p.75.
- 10) 정홍숙(2005). 서양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pp.107-108.
- 11) 이옥희(2001). 이상적인 인체미와 복식디자인의 착시효과-사적 연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5.
- 12) 전선정(1994). '앞의 글', p.13.
- 13)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앞의 책', p.68.
- 14)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앞의 책', p.66.
- 15) 정경자(1986). 중세 말기의 프랑스 복식에 관한 고찰-13-14세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 16) 조진애, 손희정, 이혜진(2001). '앞의 책', p.150.
- 17)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앞의 책', pp.69-70.
- 18) 전경숙(1995). '앞의 글', p.8.
- 19) 백영자, 유효순(2003). '앞의 책', pp.131-132.
- 20) 백영자, 유효순(2003). '앞의 책', p.139.
- 21) 조진애, 손희정, 이혜진(2001). '앞의 책', p.184.
- 22)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앞의 책', p.70.
- 23) 전선정(1994). '앞의 글', p.13.
- 24)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앞의 책', p.70.
- 25)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앞의 책', pp.71-72.
- 26)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앞의 책', p.70.
- 27) 조진애, 손희정, 이혜진(2001). '앞의 책', p.186.
- 28) 이옥희(2001). '앞의 글', p.57.
- 29) 조진애, 손희정, 이혜진(2001). '앞의 책', p.211.
- 30) 백영자, 유효순(2003). '앞의 책', p.148.
- 31) 지양숙(2004). 중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32) 전선정(1994). '앞의 글', p.16.
- 33) Hugues Charreyron(2005). A Guide to the Louvre. Snoeck-Ducaju & Zoon, Ghent, Belgium, p.167.
- 34) 조진애, 손희정, 이혜진(2001). '앞의 책', p.167.
- 35)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2). '앞의 책', p.83.
- 36) 정홍수(2005). '앞의 책', p.155.